

제11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 인사말·개회사·축사

인사말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먼저 본 회의를 준비하시고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가 준지 회장님, 수산청 야마다 슈우지 장관님과 협회 관계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수산국으로 자원과 어장을 공유하며 서로 친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일본어항어장협회는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협회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난 11년간 수산업의 기반인 어촌과 어항과 어장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은 물론 양국 수산관계자들의 우의를 다져온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수도 동경 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어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WTO 및 FTA 협정으로 인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어 어촌 경제에 어려움이 가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생산기반 정비, 어촌관광의 활성화, 어촌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이 일본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재편됨에 따라 식품산업을 일원화 할수 있게 되어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재정립중에 있으며, 우리 협회도 어촌어항어장의 발전을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연안역의 정화정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이번 회의에서, 「향후 어항어장어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작금의 양국 수산 현안을 뛰어 넘는, 미래지향적인 수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회사



다나가 준지(田中潤児)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어항어장협회 회장 다나가입니다.

이번 회의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 주신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배평암 회장님,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단원여러분 정말로 잘 와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 해주신 야마다 슈우지장관, 하시모토 오사무 어항어장정비부장을 비롯한 많은 수산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단체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협회는 1988년 어항대회부터 교류가 시작된 이래 밀접한 관계와 우정으로 이어 왔습니다. 이런 관계속에서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양국간의 어업,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술교류회의를 계획하여 1997년 도쿄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금년에 벌써 11번째가 됩니다.

양국은 세계 유수한 어업국이며,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할수 있는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연안지역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수산업과 이것을 지지하는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양국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그 기반인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서 양국 간에 기술교류가 깊어지는 것은 지극히 가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오래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테마는 「향후 어항어장어촌이 나아가야 할길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의 회의와 함께 내일 아이즈어항 시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및 현지시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야마다 슈우지(山田修路)
수산청 장관

오늘 여기에서 개최되는 제11회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귀국과 우리나라가 양국의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서 이번 11번째 기술교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어촌은 국민에 대한 안전하고 다양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부한 식생활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경제의 진흥 등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어항어장정비계획을 책정하였으며, 어항·어장의 일체적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

을 지원하는 어촌의 형성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귀국과 우리나라는 공통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세계 유수한 어업국이며,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어업관리·자원관리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 이외에 어업생산의 기반인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서 양국간 기술교류를 추진해 나아가는 것은 양국의 수산분야에 있어서 지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어항·어장·어촌의 정비기술 현황과 문제점, 대응책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양국의 정비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교류와 더불어 WTO 등에서 논의되는 수산물 무역문제나 어업보조금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제휴·협조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